

17세기 문인 장유의 진보적시작품의 주제사상적특성

김 명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금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171페이지)

조선중세문학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들가운데는 외적의 침략과 봉건통치배들의 당쟁으로 복잡다단했던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장유(1587-1638, 자: 지국 호: 계곡)도 있다.

17세기 전반기 리정구(1564-1635 자: 성징 호: 월사)와 신흠(1566-1628, 자: 경숙 호: 상촌), 리식(1584-1647, 자: 여고 호: 택당)과 함께 《월상계택(月象溪澤)》의 4대문장가라고 불리운 장유는 조선봉건왕조중기의 진보적인 시인이다.

장유의 시작품들을 분석해보면 복잡다단한 당대 사회현실을 깊이 투시한데 기초하여 어지러운 봉건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하고 인민들을 동정한 진보적인 작품들이 적지 않다.

장유의 문집인 《계곡집》(34권)에는 근 1 500수에 달하는 많은 시작품이 전해지고있지만 그가운데서 진보적의의를 가지는 작품들을 추려서 분석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어지러운 봉건정계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

장유의 시작품들가운데서 어지러운 당대 봉건사회현실을 예리한 안목으로 투시하고 사회의 불합리를 까밝힌 작품들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봉건사회현실의 불합리를 비판한 장유의 작품들가운데서 두드러지는것은 추악한 정계현실을 꾸밈이나 애두름도 없이 예리한 필치로 파헤쳐보이고있는것이다.

2.1.1. 당파싸움에 대한 비판

어지러운 봉건정계현실을 비판한 장유의 시작품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당파적리익을 위하여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추악한 싸움을 일삼는 봉건통치배들을 예리하게 비판한 작품들이다.

17세기에 들어와 사회의 혼란과 불합리는 봉건통치배들속에서 일어난 당파싸움에 의해서 더욱 조장되였다.

이 시기에는 봉건정부의 인재등용도 청렴하고 대바르며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을 기본으로 등용한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집권당파의 전횡에 의해서 좌우되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나타나 량심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들이 불우한 생활을 강요당하곤 하였다.

장유는 이러한 시기에 관료생활을 하면서 봉건통치층의 부패타락한 생활과 파벌들에 의해서 조장되는 반목과 질시, 무질서한 관리등용 등 봉건정계의 혼란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를 비판한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광해군시기 치렷했던 당파싸움으로 밀려나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관료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예리하게 단죄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한적하게 살며 함부로 하는 말》(10수), 《옛뜻으로》, 《파리》, 《흥에 겨워》, 《감흥》, 《까치》, 《동추 김득지가 시를 부쳐주니 기뻐서 차운하다》 등이다.

시 《한적하게 살며 함부로 하는 말》(10수)에서 시인은 당시의 정계현실을 약육강식의 법칙이 란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것으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폐단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제1수에서 시인은

큰 벌레가 작은 벌레 잡아먹고	大虫食小虫
강한 놈은 약한 놈의 고기를 먹네	強者飽弱肉
이 세상에 삼키우고 삼키는것들	呑啖世界內
서로가 잔인하기 그지없구나	物物相殘賊
강한놈이 어찌 늘 세기만 하랴	強者豈常強
때로는 더 강한 적수를 만나리	有時遇勍敵
...	...

(《계곡집》 권 25 《索居放言》 제1수)

라고 노래하고있다.

작품은 자연의 동물세계를 시화한듯 하지만 그속에 담겨진 시인의 진의도는 광해군시기 자기들의 반대파세력을 원쑤대하듯 하며 서로 피비린내나는 살륙과 모함을 일삼던 정계의 현실을 비판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파벌들의 집권이 실현되면 《강한 놈》이 되어 반대파인 《약한 놈》을 잔인하게 《삼키는》 현실, 반대파를 제거하면 또 다른 정치적적수를 만들어 시기, 모해하는 정계현실에 비판을 가하고있다.

한편 시의 제3수에서는 당파싸움이 권력을 승상하는 당대의 그릇된 사회풍조때문이라고 노래하고있다.

...	...
선비가 베옷을 입었을 때는	士方被褐時
친척들도 거들며 보지 않지만	親戚不省錄
하루아침 높은 벼슬 올라선다면	一朝乘高軒
길가던 사람들도 무릎을 꿇네	路人爲匍匐
총애 곤욕 본래는 분수 없어서	寵辱本無常
세상인정 지위 따라 바뀌여지네	世情隨地易
...	...

(《계곡집》 권 25 《索居放言》 제3수)

시에서 시인은 벼슬에서 파직되면 《친척들도 거들떠 보지 않지만/ 하루아침 높은 벼슬 올라선다면/ 길가던 사람도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인정이 지위에 따라 바뀌는 그릇된 사회풍조가 사람들을 권력쟁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하고있다.

시 《옛뜻으로》, 《감흥》(제1, 7수)은 보다 직설적인 수법으로 그 추악한 면모를 까밝히고있는 작품들이다.

시 《감흥》(제1수)은 당쟁에 환멸을 느낀 시인이 단호하게 정계와 결별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려는 지향을 반영한 작품이다.

어찌하여 흑흑흑 탄식하는가	唧唧何所歎
근심스레 갈림길에 이르렀노라	悠悠臨岐路
군자는 외로이 절개 지키는데	君子抱孤貞
당파가 많아 질투가 병이라네	黨人多病妬
누가 알라 복숭아꽃 오얏꽃이	誰知桃李花
그 본래 말없는 나무인데야	本是無言樹
옛날의 어진 이 천하를 도피하니	許由逃天下
못사람들 이상하다 의심했어라	里人疑竊履
혼탁된 세상과 단호히 결별하리	去去絕濁世
나의 마음 소박함을 따라가노라	冥心遊太素

(《계곡집》 권 25 《感興十四首和奇庵子》 제1수)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에게는 어지러운 벼슬길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도피》하는가 하는 두가지 갈림길이 주어져있다. 아무리 시인이 《절개 지키》며 바른말을 하자고 해도 정계에 만연된 당파싸움은 그 무엇도 용서치 않는다. 《질투가 병》으로 굳어진 봉건관료들은 어진 관료이든 아니든 자기의 당파적리익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짓도 서슴치 않는다. 바로 이러한 관료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은 《혼탁된 세상》이고 이 세상과는 《단호히 결별하》여 《소박함을 따라가》는 편이 더 나은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 《감흥》 제7수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절개높은 선비 구슬과 눈갈건만/ 참소하는자 간사한 혀를 가졌다네/ 교묘하게 배속에도 숨배여 들어갈듯/ 뺨에 사무치게 비방중상하네/ 만고에 으뜸가는 모함이어서/ 흙밑엔 충신의 피 력력하고나/ 옛시에서 의심을 버리라 하였건만/ 악독한 말 그대로 사무친다오/ 부질없이 사람들 죄인으로 몰아가니/ 눈물을 삼키며 하늘 향해 웨치노라(貞士如玉雪/ 讒人有巧舌/ 浸潤工入腹/ 萋菲解鎖骨/ 萬古一機阱/ 土中多碧血/ 宵雅欲投界/ 惡惡語徒切/ 空令覆盆人/ 飲泣號蒼旻)》*고 절규하고있다.

* 《계곡집》 권 25 《感興十四首和奇庵子》 제7수

시 《옛뜻으로》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에 대하여 더욱 예리하게 비판하고있다.

장안의 굽이굽이 열두거리는	長安十二衢
궁성으로 마차길이 이어졌구나	馳道通未央
이른아침 궁성문이 열리고나면	平朝禁門開
화려한 수레들이 밀려드는데	軒蓋鬱相望
황금으로 말머리 장식하였고	黃金絡馬頭
붉은 옷 현란하여 눈부시구나	朱衣爛生光

길손들 가까이로 범접못하니	行者不敢近
의기는 누구라없이 양양하구나	意氣何揚揚
저들은 누구이나 물어봤더니	借問此何官
고관대작들이라 대답하누나	御史侍中郎
푸르른 대궐문을 드나들면서	出入青鎖闥
남의 허물 들추어 시비질하네	彈射陳皂囊
눈치를 보아가며 어명 받들고	顧眄承意旨
미주알 고주알 다투군 하네	傾奪爭毫芒
...	...

《계곡집》 권 25 《古意》)

시의 앞부분에서는 한성에서 행세하며 돌아치는 고관대작들의 위엄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시화하면서 한성에 우글거리는 양반들의 《양양한》 기상은 폭압적이라는것을 시사해 주고있다.

계속하여 시인은 뒤부분에서 집권과량반들이 비록 하층백성들에게는 위엄을 뽐내지만 그 생활리면을 들여다보면 시기와 질투, 피로 얼룩진 당파싸움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아침엔 서로들 동료였지만	朝爲同袍人
저녁엔 모두다 원썬되어서	暮成胡與羌
마루에선 친절한체 말을 하다가	上堂語昵昵
내려서면 남몰래 화살 날리네	下堂弧矢張
푸주사람 큰 물고기 삶아낼적에	庖人烹大魚
배속에는 작은 고기 들어있더라	小魚在腹腸
큰고기와 작은 고기 한부류이나	大魚與小魚
어이하여 서로들 잡아먹기나	同類還相戕
만물리치 예로부터 그런것인가	物理自古然
그대 어찌 슬프게 탄식하는가	君何苦歎傷

《계곡집》 권 25 《古意》)

시에서 《아침엔 서로들 동료였지만/ 저녁엔 모두가 원썬》되는것은 시국에 따라 변화되는 당파들의 결탁과 모함관계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며 당쟁의 진면모를 생동하게 표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의 시들과 달리 시 《네가지 새소리》(4수)중의 네번째 수에서는 특색있는 방법으로 당파싸움을 끝장내고 봉건정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시인의 의도를 일반화하고있다.

각각 화목해야 하리	各各和同
장수 재상 그 모두가	將相諸公
나라은혜 막중하고 개인원한 가벼운데	主恩至重私怨輕
무슨 일로 눈 부릅뜨고 성나서 싸우느냐	底事睚眦長忿爭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君不見
장공이 기뻐할 때 리공이 우는것을	張公得意李公啼
누구나 다 화해하면 편안함을 얻으리	廉藺高風誰得齊

《계곡집》 권 26 《戲作四禽語》 제4수)

시에서는 사사로운 개인의 원한과 복수심때문에 나라 위한 대의를 저버리고 서로 《눈 부릅뜨고 성나서 싸우》는 봉건통치배들의 저렬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당파싸움을 완화하고 봉건정치를 바로해나갈데 대한 주장을 강조하고있다.

장유는 이와 같이 당쟁이 심하던 어지러운 정세현실을 예리한 안목으로 투시하고 당파싸움에 대한 환멸과 비판의 감정을 토로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17세기 전반기 한자시문학의 현실비판적경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1.2. 국방력을 홀시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

어지러운 봉건정세현실을 비판한 장유의 시작품들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케 한 봉건위정자들의 안일해이함과 무능성을 비판한 작품들이다.

장유가 생존하던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형편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임진조국전쟁의 뼈저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정묘, 병자의 란리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로부터 장유는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일련의 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가지 방도에서 중요한것이 바로 《적을 제압하는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변이 재변으로 되는것은 하늘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 반정(1623년)이후로 큰 변란을 거듭 겪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은것이 다행이다. 오늘에 이르러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되어 멀고 가까이에서 아우성치고 강한 오랑캐들이 날마다 삼켜버릴 공공이를 하고있는데다가 흉년재해까지 겹쳤다.》*고 하면서 모두가 마땅히 분발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를 복구하며 절약을 하고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계곡집》 권 18 《구언웅지차》 참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시 《서쪽변방으로 부임하는 천장을 보내며》, 《보검》, 《봉화》, 《장수의 죽음을 애도하여》이다.

시 《서쪽변방으로 부임하는 천장을 보내며》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무관심한 봉건통치배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서쪽에서 오는 살기 하늘을 뒤덮을제	西來殺氣暗胡天
대장군은 창을 들고 변방으로 가는구나	大將橫戈去按邊
...	...
새벽이면 군기가 료산의 달 가리고	紅旗曉拂遼山月
날 개이면 장막은 압록강에 다달으리	玉帳晴臨鴨水烟
예로부터 군사들은 진중한것 귀하거니	自古王師貴持重
선비들의 고생없이 변방에서 공 세우리	不煩才子勒燕然

(《계곡집》 권 30 《送天章佐體察幕府赴西塞》)

시 《서쪽변방으로 부임하는 천장을 보내며》는 오랑캐들이 서쪽국경을 넘보며 살기를 풍기는 엄혹한 국경상황을 제시하면서 장군이 어서 가서 오랑캐를 쳐물리치고 나라변방을 수호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펼쳐보이고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부분에서 군사를 진중하게 지휘하면 변방에서 공을 세울수 있다고 한 시적형상은 군세를 바로잡아 나라를 보위할것을 기대하는 시인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한편 시 《봉화》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비온 뒤 만학천봉 어스름한데	雨外千峯暝
구름속에 점점이 봉화 비치네	雲間幾點明
아득히 멀고먼 변방에서부터	遙遙自關塞
밤마다 수도성엔 급보가 오네	夜夜報秦城
바람 급해 불빛이 온전치 않고	風急偏難定
성글은 못별과 닮뜰하는듯	星疎乍欲爭
썩은 선비 전란을 당하고나니	腐儒逢世亂
한치 심장 놀래며 바라보노라	看此寸心驚

(《계곡집》 권 27 《烽火》)

시에서 시인은 변방에서부터 봉화가 타오르고 수도성으로 급보가 오는 긴박한 정황에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는 썩은 선비—나약하고 무기력한 봉건통치배들을 조소하고있다. 이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책망이면서도 전란에 미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을 은근히 비판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칼날이 번뜩이는 유명한 보검	寶劍光炯炯
대장쟁이 손에서 버려진다네	出自歐冶手
...	...
세상밖 어디에서 시험할손가	未試天外倚
헛되이 갑속에서 울부짖누나	空聞匣中吼
유명한 자객에게 주어보내서	持贈傳介子
오랑캐왕 머리를 베어버렸으면	願取戎王首

(《계곡집》 권 25 《寶劍》)

시에서는 광채가 류다른 보검이 갑속에 헛되이 묻혀 쓰이지 못하는것을 탄식하면서 그 보검으로 오랑캐왕의 머리를 베어버리기를 바라는 시인자신의 심정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토로하고있다. 그러나 시의 감정정서를 파고들어보면 여기에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외적을 물리치는데서 보검—지혜있고 용맹한 인재를 제대로 가려쓰지 못하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의 감정이 짙게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이렇듯 장유는 나라의 운명에 대한 걱정과 원쑤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방위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나라에 수치를 가져온 봉건통치배들의 무능성과 비겁성을 폭로한 진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2.1.3. 그릇된 인재등용정책에 대한 비판

어지러운 봉건정체현실을 비판한 장유의 시작품들에서는 다음으로 인재를 옳게 등용하지 못하는 폐단을 비판하고 어진 정사를 실시할데 대한 자기의 지향을 반영한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17세기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봉건정부에서는 많은 양식을 바치거나 군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한 신분을 벗겨주고 벼슬에까지 등용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서열소통》이나 《숙량면천》정책과 같은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례이

다. 그러나 반면에 관리등용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게 되었고 이로부터 재목이 안 되는자들이 돈과 퇴물로 높은 관직에 올라서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장유는 나라의 정사가 잘되고 백성이 편안하자면 《어진 신하》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의 시목음 《24장》중의 시 《편안한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땅우에 덮어놓은 사발은 기울지 않고	覆盂地上不偏側
높은 산 아래에는 너럭바위 누웠구나	太山山下磐陀石
강호에 숨어살며 아무런 욕심 없고	巖居川觀白無欲
어진 신하 있는 나라 만민이 즐거웁다	國有良臣萬民樂

《계곡집》 권 34 《安語》)

그는 자주 정계에서 밀려난 대바른 인간들에 빗대어 올바른 인재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당시 위정자들의 그릇된 처사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임무숙을 애도하여》(2수), 《쉬운것》, 《뜨거운것》, 《감흥》(제2, 4, 5, 6수), 《흥에 겨워》(제2수), 《김력옹에게 주노라》, 《생각나는대로》(제2수), 《개암나무를 찍으며》를 들수 있다.

그는 시 《임무숙을 애도하여》의 첫번째 수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시골에서 들었구나 그대 영영 떠나감을	絕域聞君長逝辰
매운 바람 찬 달빛 슬픔 고통 더해주네	淒風冷月助悲辛
그대 지조 한치라도 꺾인것 없지마는	心無一寸催仍盡
눈물만은 천만갈래 흘러서 씻기누나	淚有千行灑更新
하늘세상 대바른 그대를 데려가고	天上應收草記手
인간세상 바른말할 사람을 잃었구나	世間難得敢言人
가련토다 추위속의 소나무 잣나무가	可憐松柏凌寒在
세상의 풍파속에 떨나무가 되었구나	劫火燒來也作薪

《계곡집》 권 31 《哭任茂叔》 제1수)

임무숙은 광해군시기에 바른말을 잘하기로 널리 알려진 임숙영(1576-1623, 자: 무숙 호: 소암)을 말한다.

임숙영은 여러번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하다가 1611년에야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는데 과거시험장에서 왕이 사치하고 안락한 생활에 빠져서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는것 등 정계의 문란함을 책문으로 써서 바치였다.

왕과 왕비를 비방하였다는 그 책문으로 하여 임숙영은 합격자명부에서 삭제당하였다.

임숙영의 이 사건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임숙영이 삭과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석주 권필이 《공류시(임무숙이 삭과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를 지었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장유는 임숙영의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도 정직한 신하가 세상을 떠난데 대한 애석함을 표시하고있다. 시에서 《추위속의 소나무, 잣나무》는 광해군폭정하에서 등용되지 못하면서도 역세게 살아온 임숙영의 절개를 념두에 둔것이라고 볼수 있다.

아름답고 사리밝음 다시 보기 어려우리	英英精爽見無回
알겠구나 그대가 죽은 사람 아님을	知子應非墮落人
조정은 그대 이름 염라국에 보냈건만	絳闕名歸天上籍

옥황상제 그대를 충신으로 삼았다네	玉皇招作案頭臣
대바른 이 목숨은 그 어찌 짧은건가	公明壽祿寸何減
간교한자 한생은 공적없이 흘러가네	伯道生涯業更貧
그대 없는 백년간은 꿈속처럼 혼미하고	任是百年還夢幻
그대 남긴 유서는 천년동안 교훈되리	猗畱遺草照千春

(《계곡집》 권 31 《哭任茂叔》 제2수)

우의 시는 《임무숙을 애도하여》의 두번째 시이다. 시에서 시인은 임숙영의 인간됨을 높이 평가하면서 충신은 죽어서도 충신이며 그가 남긴 대바른 뜻은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의 굳센 마음을 펼쳐보이고있다.

그가 《곡목설(曲木說)》에서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굽은것은 비록 천한 목수도 쓰지 않는다. … 나무가 굽은것은 항상 불행이지만 사람이 굽은것은 항상 다행한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악기의 줄과 같이 곧은자는 죽게 되며 번두리가 갈구리처럼 굽은자는 공작, 후작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굽은 선비가 굽은 나무보다 많아지는 원인이다.》* 고 하면서 조정에 굽은 나무(쓸모없는자)가 많으며 오히려 그것들이 득세하고있다고 봉건정부를 조소한것을 보면 그가 옳바른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정계에 얼마나 불만을 품고있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 《계곡집》 권 4 설

한편 시 《뜨거운것》에서는

불이 붙는 시내에다 뜨거운 샘 부어놓고	焦溪側畔湯泉流
남쪽지방 삼복철에 불구름이 떠오르네	南交三伏火雲浮
자그마한 성밖에선 소꼬리에 불을 달고	即墨城外燒尾牛
공후장상 집문앞에 벼슬아치 빼곡하네	五侯門前青紫稠

(《계곡집》 권 34 《熱語》)

라고 노래하고있는데 공후장상들—집권과랑반들의 집에 관료들이 찾아든다는것을 뜨거운 것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묘사하고있다.

이것은 봉건정부에서의 인재선발과 등용이 인간됨과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관대작들의 집에 불이 달릴 정도로 찾아드는 관리들의 퇴물행위와 아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함축성있게 표현하고있다.

이 시는 매관매직과 전횡의 장본인이 바로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는 집권과랑반들이라는것을 시사한것으로서 봉건사회에서 인재등용의 병폐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장유의 현실비판주제의 시작품들은 불합리로 어지러운 봉건정계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비판의 예봉을 주로 봉건위정자들에게 돌리고있으며 그 기백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이 주제에 바쳐진 장유의 시문학작품들은 17세기 전반기 시문학의 비판적경향을 강화하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고 볼수 있다.

2.2. 인민들에 대한 동정과 노동생활에 대한 긍정

2.2.1. 농민들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동정

장유의 농촌생활체험을 반영한 시작품들중에서는 무엇보다도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하는 농민들의 불우한 처지를 동정한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생애의 많은 기간을 농촌에서 보낸 장유는 량반들의 호화사치한 생활과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농민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장유의 농민생활을 동정한 시작품들에는 《서리가 일찍 내려》, 《늪은이 벼를 베네》, 《피로운 비》, 《큰물》, 《호미씻기》, 《봄날 시를 지어 장장에게》, 《극심한 가물》, 《메새》, 《전원으로 돌아와》(2, 3, 4, 7, 9수), 《지독한 추위》 등이 대표작이다.

특히 시 《서리가 일찍 내려》와 《늪은이 벼를 베네》와 같은 작품들은 봉건적착취로 인하여 농민들이 당하는 고달픈 생활을 그대로 시화한것으로서 그의 농촌주제시들가운데서도 비판적지향이 강한 작품계열에 속한다.

7언고시 《서리가 일찍 내려》에서 시인은 례년에 없이 일찍 내린 서리로 하여 농사가 망하게 된 정황을 설정하고 그속에서도 농민들을 착취하려 피눈이 되어 날뛰는자들을 타매하고있다.

병진년 가을 팔월 열이튿날 밤사이
된서리 내려쌓여 흰눈처럼 보이누나
늦벼는 익지 않고 콩꼬투리 맺혔는데
가련쿠나 온갖 곡식 일찌기 시든것이
농부는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해도 흉년인데 올해에도 굶는다네
현령은 들어오는 조세가 적다고 하며
조세 늘어 때없이 논밭에서 굶어간다

丙辰八月十二日
夜來嚴霜白如雪
晚稻未熟豆結子
可憐百穀皆天闕
田翁拊膺涕淚垂
去年不飽今年飢
縣官只愁歲入少
增租枯田無已時

(《계곡집》 권 26 《早霜》)

시에서는 때이르게 내린 된서리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데 고을의 우두머리 현령은 농민들의 기막힌 처지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환자쌀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조세를 늘이고 밭두령을 싸다니는 몰골을 그대로 시화하고있다.

시 《늪은이 벼를 베네》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적계기를 통하여 비판적지향을 보다 뚜렷이 표현하고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늪은이 벼를 베네 채 익지 않은것을
며느리 벼를 찢네 채 마르지 않은것을
아전의 조세독촉 그 소리는 범갈고
쌀독을 기울여도 오히려 성을 낸다
《나리님 어찌하여 또 성을 내는가요
씨암닭 삶아내고 기장밥을 지으리다》

翁刈稻稻未熟
婦舂稻稻帶濕
吏來索租聲如虎
傾盎欲與吏轉怒
請吏且住何怒爲
伏雌可烹黍可炊

아전은 꾸중하며 고개짓도 안하누나 吏詆而去首不回
래일아침 아마도 문서 들고 다시 오리 明朝定有追符來

(《계곡집》 권 26 《翁刈稻》)

시에 보는것처럼 봉건적착취는 자그마한 융화도 없는 매우 극악한것이다.

채 여물지도 않은 벼를 베는 늙은이와 마르지 않은 벼를 찢는 머느리의 형상은 굶주림을 못이겨 허덕이는 농민들의 비참한 참상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시적세부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참상은 봉건적착취의 직접적집행자인 아전들의 파렴치한 조세독촉으로 더욱더 험악해진다.

시에 흐르는 기본정서는 고되게 일해도 굶주림을 면할수 없는 기막힌 처지와 가혹한 착취를 당해야 하는 농민들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동정이다.

장유의 농민들을 동정한 시유산가운데는 인민들의 불우한 처지와 고관대작들의 호화사치한 생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봉건사회의 반인민성을 폭로한 작품들도 있다.

시 《지독한 추위》에서는 때이르게 찾아온 추위로 떠는 농민들의 불우한 처지를 장안의 호화사치한자들의 생활과 대조시켜 보여줌으로써 통치배들의 호사스런 생활은 바로 인민들의 모진 고통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임을 암시하고있다.

...

부뚜막엔 불꽃 없고 베이불엔 랭기 돌고
사나운 바람만이 초가집에 찾아분다
생각하네 한양장안 부귀로운 집들에는
넓고 깊은 은총으로 인생은 봄날같네
털옷 입고 솟피우며 술에 취해있으니
인간세상 눈서리에 두려운것 뭐 있으랴

...

...

地爐無焰布被冷
獐風日夕搜茅茨
忽憶長安豪貴家
恩光浩蕩春無涯
狐裘獸炭醉耳熱
不怕人間有霜雪

...

(《계곡집》 권 26 《苦寒行》)

《사나운 바람만이 초가집에 찾아》서 불건만 부귀가의 량반들은 《털옷입고 솟피우며 술에 취해있》다는 대조되는 시적형상은 백성과 량반, 피착취자와 착취자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예리하게 밝혀내면서 인민들에 대해서는 끝없는 동정심을, 반면에 통치배들에 대해서는 저주와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장유의 시 《네가지 새소리》중에서 소쩍새와 메새를 노래한 시작품들은 농민들의 세태생활을 방불하게 펼쳐보여주면서 착취와 자연재해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인간상을 훌륭하게 일반화한 작품들이다.

소쩍새를 노래한 시는 다음과 같다.

솔작구나 솔작구나	鼎小鼎小
지을 밥은 많은데 밥을 다 지을수 없네	飯多炊不了
금년엔 쌀이 귀해 밥먹기도 어려워니	今年米貴苦艱食
솔작다 걱정말고 쌀 없음을 근심하게	不患鼎小患無粟
쌀독속에 난알만 남아있다면	但令盎中有餘糧
익는 족족 다시 지어도 될게 아닌가	乘熟再炊猶可足

(《계곡집》 권 26 《戲作四禽語》 제1수)

시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솔작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의 음 《鼎小 鼎小》와 류사한 데서 상을 잡고 지은 이채로운 작품이다. 솔이 작아 밥을 채 짓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심정을 흥년들어 굶주릴 농민들의 처지를 상기시켜 녹차혀주는것을 통하여 시에서는 어려운 농촌생활의 일단을 펼쳐보여주고 간접적이거나 농민들을 동정하고있는것이다.

새소리에서 상을 잡아 지은 시중에서 메새의 울음소리 《찌죽 찌죽(稷粥稷粥)》에 의탁하여 지은 시편은 농민들에 대한 착취상을 해부하면서도 농민들의 세태생활을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노래한 작품으로서 이채를 띤다.

피죽 피죽	稷粥稷粥
쌀적고 물 많으니 죽이 잘 익지 않네	米少水多粥難熟
재작년엔 큰 장마 작년엔 또 왕가물	前年大水往年旱
관가조세 걷기 전에 농부는 울고온다	官租未輸農夫哭
죽먹으면 배고파도 굶주림은 면하니	喫粥不飽猶免饑
그대여 피죽이 멀겁다고 탓하지 말아	勸君莫厭稷粥稀

(《계곡집》 권 26 《戲作四禽語》 제3수)

소쩍새의 울음소리에 의탁하여 지은 우의 시에서는 타발하는 사람이 밥짓는 사람이라면 메새의 울음소리에 의탁한 이 시에서는 타발하는 사람이 죽을 쑤는 사람이다. 우의 시(소쩍새)에서는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동정하고있다면 이 시(메새)에서는 《관가조세 걷기 전에》 울고 우는 농부를 직접적으로 동정하고있다.

시에서는 죽을 먹는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농촌의 한 가정에서 있는 평범하면서도 세태적인 이야기를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방불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농민생활에 대한 뜨거운 동정을 불러일으켜주는 작품이다.

장유의 농민생활을 동정한 작품들에는 봉건적착취와 함께 자연재해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한 작품들도 있다.

장유는 《피로운 비》라는 제목으로 5언고시, 5언률시, 7언률시 등 여러 형식으로 시를 지었는데 한결같이 폭우로 농사일에 영향을 미칠가봐 걱정하고있는 작품들이다.

5언고시 《피로운 비》에서는 《석달동안 가물어도 참을수 있었는데/ 삼일동안 내리는 비 견디기 어렵노라/ 하물며 열흘동안 오는 비야(三月旱猶可/三日雨難堪/況復更彌旬)》라고 노래하면서 지독스럽게 내리는 비속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을 동정하고있다.

...	...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	朝來視天宇
구름은 노하였나 하늘 삼켰네	雲物怒猶含
아마도 비내리는 룡이 날아와	或傳行雨龍
노들강 기슭에다 굴을 뚫는지	近窟驚江潭
...	...
불어난 물 교만하게 흘러가는데	潑水恣驕婪
백성의 노래소리도 악의에 찬듯	謠言亦可惡
...	...

(《계곡집》 권 25 《苦雨》)

시에서는 열흘이나 못지 않고 내리는 비에 대한 야속한 심정을 펼쳐주면서 농민들의

농사가 제대로 안될가 우려하고있다. 이것은 시인이 하층인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불행한 농민들의 시점에서 자연현상을 대하려고 한것임을 알수 있게 한다.

그의 5언률시 《피로운 비》는 벼슬살이를 하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지만 센 바람과 함께 내리는 사나운 봄비로 농사에 미칠 후환을 걱정하는 자기의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한편 7언률시 《피로운 비》에서는

남산 북산 하늘가에 구름이 질더니	南山北山雲漠漠
문밖에도 문안에도 비발이 우수수	出門入門雨浪浪
개구리 골목에서 소란스레 울어대고	蛙鳴閭閻苦相聒
지붕뚫고 새는 비 막아내기 어려워라	屋漏床床難自防
타작마당 익은 보리 떠내려가 없어지고	麥熟登場漂欲盡
섬돌가득 자란 국화 불에 덴듯 쓰러졌네	菊生滿砌爛堪傷
가난한 마을이라 열흘이나 불 못 때니	窮閭十日炊烟冷
들일 하는 사람 위해 주먹밥도 못나르네	裹飯無人餉子桑

(《계곡집》 권 30 《苦雨》)

라고 노래하면서 보리고개에 내리는 사나운 비로 《타작마당 익은 보리》가 떠내려가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고된 일에 시달리는 농민들에 대한 걱정을 표시하고있다.

시 《피로운 비》가 농민들이 장마의 피해를 받는데 대한 불안과 동정을 표시하였다면 시 《전원으로 돌아와》 제3수와 제4수에서는 가물들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한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있다.

낮은 밭은 모두가 바다근처고	下田多近海
높은 밭은 모두가 산에 있는데	高田多在山
올해엔 봄철부터 가물이 들어	今年苦春旱
밭갈아 씨뿌리기 어려워리라	耕種皆頗艱
...	...

(《계곡집》 권 25 《歸田漫賦》 제3수)

한편 시 《전원으로 돌아와》 제4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모내기 하려는데 물이 없어서	種稻苦無水
도랑을 파 산골물을 끌어오는데	鑿渠引山澗
도랑물이 얕아서 쉽게 마르니	澗淺水易涸
농부의 가장 큰 근심이라오	農夫最所患
흉년들면 쪽정이 쌀겨를 먹고	饑歲食糠粃
베갯뱅이 정깁지도 못가리우니	短褌不至扞
4민중 농사꾼이 제일 힘드나	四民農最苦
간교한 벼슬살인 아니 배우리	不如學巧宦

(《계곡집》 권 25 《歸田漫賦》 제4수)

시에서는 물이 없어 모내기를 제대로 할수 없는 농부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면서 바로

가물로 흉년이 들면 《쪽정이 쌀겨를 먹》으며 《베잠뱅이 정갱이도 못가리》고 살 농민들의 한심한 생활상이 사, 농, 공, 상의 4민중에서 가장 고달프다고 정당하게 평가하고있다. 그러면서도 《간교한 벼슬살이》는 배우지 않았다는것은 시인의 벼슬에 대한 환멸의 감정을 구현한것으로 된다.

7언률시 《극심한 가물》에서도 가물로 한탄만 하는 농민들의 정상을 펼쳐보이면서 어서빨리 단비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시인의 근심이 일반화되고있다.

무더위속 산천에서 뜨거운 해 바라보며	滌滌山川仰赫曦
농부는 쟁기 놓고 한탄만을 하는구나	農夫輟耒只嗟咨
조정은 어찌하여 단비 오게 못하는지	朝廷豈乏爲霖雨
은하수를 그 누가 시속에서 해석하리	雲漢何人解賦詩
못밑의 늙은 룡도 보전하기 어렵고	潭底老龍難自保
수레자국 마른 붕어 그 누가 슬퍼하리	轍中枯鮒有誰悲
산과 강의 구름 안개 한데 섞여 감돌뿐	峽雲江霧渾無賴
어찌하면 서늘한 바람 매일같이 불게 할가	奈此淒風盡日吹

《계곡집》 권 30 《悶旱》)

장유는 이렇듯 가물이나 장마와 같은 자연현상을 대하면서도 언제나 농민생활과 농사를 걱정하곤 하였다. 이것은 그가 농촌에서 살면서 농민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농민들을 동정하는 입장에서 많은 시적사색을 하려고 노력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렇듯 장유의 시유산가운데는 농민들을 악착하게 착취하는 봉건통치배들을 단죄하고 농민들을 뜨겁게 동정한 진보적경향이 나타나고있다.

2.2.2. 로동생활에 대한 긍정과 찬양

장유의 농촌생활체험을 반영한 시작품들중에서는 다음으로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로동을 중시하고 로동생활, 농촌생활을 긍정한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장유자신은 물론 관료출신의 문인으로서 농민의 자세에서 로동을 대한것은 아니며 그의 시작품에는 당시 농사일을 관조적으로 대한 요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가 봉건정계에서 버림을 받고 농촌생활에서 진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한 문인으로서 농민생활을 대하였기때문에 그의 시작품들에는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로동생활을 긍정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있다.

바로 이러한 장유의 생활적지향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이 4편으로 된 《농사집에서의 가을의 기쁨》과 《전원으로 돌아와》(5, 6수), 《포도》, 《벼수확》, 《단비》 등이다.

작품들에서는 로동생활을 긍정하고 농사를 장려해야 한다는 장유의 견해가 직접 노래되고있다.

시 《전원으로 돌아와》(제5수)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남산의 곁에다 밭을 일쿠고	耕田南山側
북산의 골에다 집을 지었네	結廬北山谷
아침에 다락밭에 올라갔다가	朝出到壟土
저물어 돌아와선 책을 읽노라	暮歸理書策
웃사람 부지런한 나를 비웃지만	旁人笑我勤

내 마음 스스로 즐거웁다네	我自以爲樂
알겠노라 농사일 배우는것이	始知請學稼
벼슬구걸 하기보다 낫다는것을	猶勝問干祿

(《계곡집》 권 25 《歸田漫賦》 제5수)

작품에서는 초가집을 지어놓고 농사일에 참가하는 자신의 실지체험에 기초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노래되고있다. 시인은 학문을 탐구하면서도 농사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로동에서 생활의 보람과 진미를 찾는것이 참다운 락이라고 간주하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농사일 배》우고 로동생활을 하는것이 벼슬살이보다 낫고 사회적진보에 이바지하는것이라고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장유의 시 《전원으로 돌아와》의 다른 시들에서도 주로 벼슬살이와 농촌에서의 로동생활을 대비하여보면서 비록 《죽과 범벅을 먹으며 살아가》도 《밭이랑을 넘나들며 일하》고 《뽕나무 역삼과 즐기며 희롱하》는것이 참다운 생활이라는 그의 인생관, 농사일을 장려해야 사회적진보를 가져올수 있다는 그의 사회적견해가 피력되어있다.

한편 시 《농사집에서의 가을의 기쁨》(4수)은 가을철이 되어 로동의 열매를 맛보는 시인자신의 기쁨을 소박하게 노래하고있다.

작품은 《농사집에서의 가을의 기쁨》이라는 제목안에 《벼가을을 하며》, 《보리를 심으며》, 《토란을 저장하며》, 《밤을 따며》라는 소제목으로 가을철에 느끼게 되는 시인의 희열을 일반화하고있다.

지배계급출신인 시인자신은 농사를 하면서도 최하층농민들처럼 악착한 착취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철의 로동 그자체는 매우 흥겨운것이다. 이로부터 작품에서는 가을을 대하는 시인의 기쁨이 밝은 양상으로 노래되고있는것이다.

서리오기 전에는 올벼가 푸르고	霜前早稻青
서리온 뒤에는 늦벼가 누렇네	霜後晚稻黃
농사일 늦잡을수 없는것이라	穡事不可緩
기러기 언덕우에 가득 앉았네	鴻雁滿陂塘
농사집 일년농사 고달프더니	田家苦耕耘
이제야 기쁨이 마당에 넘치네	及此喜登場
관가의 조세 이미 실어갔으니	官租得輸納
다행히 면했노라 호통소리를	幸免追呼忙
년말이라 배불리 밥을 먹으면	殘年飽喫飯
배 두드리며 태평세월 노래하리	敲腹歌虞唐

(《벼가을을 하며》)

(《계곡집》 권 25 《田家秋興》의 《穫稻》)

작품에서는 가을되니 《기쁨이 마당에 넘치》고 《관가의 조세》도 가벼운듯이 노래된 제한성은 있으나 가을철의 벼가을정경을 한쪽의 풍속도마냥 그려보이고있으며 《배불리 밥을 먹》어보려는 자신의 소박한 리상도 펼쳐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로동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짙게 흐르고있으며 농사를 잘 짓는것이 《태평세월》과 이어진다는 그의 진보적인 견해도 엿볼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지향은 《보리를 심으며》에서도 노래되고있다.

못가에는 보리를 심을수 없어	澤國不可種
둔덕진 밭에다가 심어놓았네	高田猶可種
화전을 일꾼다면 거름맛잡이	燒畝勝糞壤
수고로이 김매기 하지 않으리	不勞事培壅
겨울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	但得冬雪多
파란 싹이 얼것을 걱정하라	豈怕靑苗凍
백이랑 찰수수도 심었더니만	兼須百畝秫
누룩 띄워 술빛는데 넉넉하다네	足充麴藥用
...	...

(《계곡집》 권 25 《田家秋興》의 《種麥》)

시에서는 보리를 심는 로동생활을 즐겁게 노래하고있다. 또한 시 《밤을 따며》에서도 《동산의 장정 날마다 밤을 따서/ 이웃집에 가져다 맛을 보이네/ 력사가에게 삼가 말을 전하노라/ 왜 하필 옛 나라만 자랑하느냐고(園丁日有収/ 波及遍比鄰/ 寄語太史公/ 何必誇燕秦)》*라고 노래하면서 농사가 잘되면 이 땅은 어딜 가나 리상촌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암시하고있다.

* 《계곡집》 권 25 《田家秋興》의 《收粟》

이와 같은 경향은 《포도》, 《벼수확》, 《단비》에서도 노래되고있다.
한편 시 《계양가는 도중》에서는

...	...
대결문은 걸려서 꿈에조차 갈수 없고	承明鎖闥夢不到
바다가 들판 못가 어디서나 살수 있네	海野林塘身可栖
선비의 갓을 쓰고 잘못 산 이내 반생	儒冠誤却半生計
책들을 모두 팔아 호미보습 바꾸리라	盡賣書籍供鋤犁

(《계곡집》 권 30 《桂陽途中早行》)

라고 노래하면서 벼슬살이를 잘못 산 인생으로 타매하고 농사에 힘쓰며 살아가려는 자신의 생활적지향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이 반영된 시작품들을 창작할수 있는것은 장유가 실학의 선구자 리수광과 련계를 맺고있어 새롭게 태동하기 시작하던 실학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은것과 관련된다. 또한 그자체가 임진, 병자전쟁을 계기로 국력이 쇠약해진데 대한 해결책을 농업에서 찾은데 기인된다고 보아진다.

장유가 농촌에서 살면서 로동을 중시하고 긍정적인 작품들을 창작하게 된것은 농촌생활에서 진미를 느끼려는 그의 진지한 생활태도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장유의 농촌생활주제의 시작품들은 로동을 신성시하고 로동속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는 시인자신의 립장이 뚜렷이 드러나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한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장유의 농촌주제시들에는 봉건시대 농촌생활을 미화한 측면도 없지 않다.

3. 결 론

장유의 시작품들을 분석해보면 진보적인 측면과 함께 제한성도 있다.

장유의 시작품들에서는 어지러운 봉건정계현실을 비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잡을 실천적의지가 없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사상감정이 담겨져있을뿐아니라 일부 시작품들은 봉건적충군사상이 깊이 스며여있는것도 있다.

이것은 당시 어지러운 사회현실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력량이 준비되어있지 못했던 시대적제한성, 또 생애에 일련의 곡절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봉건지배계급의 편에 서있었던 시인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의 발로이다. 비록 부족점과 제한성이 있지만 장유의 시작품들은 17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 시문학의 현실비판적경향을 강화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진보적인 시문학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진보적문학연구정립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아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장유, 시작품